

연어들의 반란

온난화로 섬진·탐진강 수온도 2도 상승

12년간 450만마리 방류...회귀율 0.2%

섬진강·탐진강에 매년 수십만 마리의 연어를 방류하고 있지만 고작 천 마리당 두 마리만 되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온난화 등 이유로 강 수온이 1~2도 상승 했고, 산란지와 바다의 거리가 멀어 연어들이 귀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섬진강·탐진강 회귀율 0.22%
=구례군 섬진강에는 지난 5일 현재 고작 62마리의 연어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8마리보다 3.5배 줄어들었다. 장흥군 탐진강은 방류를 한 지난 6년간 3마리가 돌아왔을 뿐이다.

전남은 지난 95년부터 모두 453만 마리의 새끼 연어를 섬진강(405만 마리)과 탐진강(48만 마리)에 풀었다. 하지만 기울 천 산란기 맞아 되돌아온 연어는 전체의 0.22%인 1천61마리뿐이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0.58%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회귀율은 0.31%였지만 전남은 0.13%에 머물렀다.

강원도 국립수산과학원 영동내수면연구소는 지난 2일 현재 양양군 남대천과 강릉시 연곡천, 고성군 북천과 명파천 등 4개 하천에서 총 9천565마리를 잡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천620마리 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올해 목표인 8천500마리를

이미 넘었다.

◇수온 상승, 지리적 불리=연어는 10도 내외에서 산란을 한다. 현재 섬진강 연어 포획지인 경남 하동군 남도대교 4km 하류 지점의 수온은 12~14도. 최근 10년간 이 곳 수온은 평균 1~2도가량 상승한 것으로 내수면연구소는 보고 있다.

연어는 또 30~40cm 수심의 강에서 포획해 알을 채란(採卵) 해야 한다. 섬진강의 경우 이 수심에 도달하려면 바다에서 10km 떨어진 곳까지 유영해야 한다. 반면 남대천은 동해에서 4~5km만 이동해도 적정 수심이 나와 연어들의 회귀가 수월하다.

◇전문가 한 명도 없는 연어 연구=영동내수면연구소는 4명의 전문가가 지난 2003년부터 철단 경로 주적 잡치인 '와이어택'(coded wire tag·크기 0.5mm)을 연어에 부착하고 있다. 포획한 어미 연어의 몸에서 다시 떼어내 회귀 과정을 밝히는 연구에 사용되며, 10만 마리에 부착하는데 2천만원이 든다.

전남도내수면연구소는 지난해 연어 방류 사업 한해 평균 예산은 1천600여만원. 이마저도 연구보다는 치어를 구입하고 키워내는데 쓰고 있다.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돌아오지 않은 연어

지난 3월 구례군 섬진강에서 열린 치어 방류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신기한 듯 연어를 강물에 놓아 주고 있다. 올해에만 연어 30만 마리가 섬진강에 방류됐다.

/위직랑기자 jrwi@kwangju.co.kr

넙치+강도다리→'새 어종' 개발

국립수산과학원

넙치와 가자미과 강도다리를 교배 시킨 새 어종(魚種)이 나왔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특성화연구센터는 8일 낙지 암컷과 강도다리를 수컷을 인공 채란·수정해 새로운 종류의 물고기를 탄생시켰다고 밝혔다.

새 품종은 ▲성장이 빠르고 ▲환경

변화에 강하며 ▲육질이 우수하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 교배종의 생존율 및 형태는 낙지에 더 유사하고, 저수온에서도 먹이 활동이 양호해 향후 낙지를 대체할 양식어종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센타 측은 낙지와 강도다리의 교배 방법을 특허등록하고, 3만1천여 마리를 연구용으로 관찰하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신품종
뼈를 성장, 우수한 맛, 저온저염 내성

국립대 교수가 판사에

"죽이고 싶다" 책 보내

민사소송 5건 각하 불만

현직 국립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재판을 담당했던 부장판사에게 자신이 쓴 "아! 현직 판사를 죽이고 싶구나"〈사진〉라는 제목의 책을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뮤도(60) 교수는 지난 7일 순천지원장인 선재성 부장판사 앞으로 145쪽 분량의 이 책을 보내왔다.

책에는 전남대 여수캠퍼스 교수의 고수직 발령 취소 소송과 자신의 미국 대학 교환교수 재임내용을 인사 기록카드에 기재해 달라는 소송 등 5건의 소송 과정에서 오고 간 문서와 판결문 내용 등 재판 진행상황이 담겨 있었다.

류 교수는 이와 관련 기자와 통화에서 "판사를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선 부장판사뿐 아니라 대법원장·검찰총장 등에게 이 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 소재 출판사에서 이 책 50부를 출간했으나, 시중에는 판매하지 않았다. 류 교수는 최근 이 책 100부를 출판사에 추가로 신청했다.

류 교수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아! 변호사, 판사도 웃기는구나!' 등 자신의 소송 사건을 담은 책 2권을 냈었다.

류 교수는 2005년과 2006년 자신의 미국 일리노이대학 교환교수 재임 사실을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해 달라는 소송과 동료 교수 발령 취소 소송 등 5건의 민사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으나 당시 행정부장이던 선 부장판사 등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내원침 7353
김종득



박철-옥소리 어색한 대질

○갑작스러운
이훈 발표로 충격
을 겪던 텔런트 박
철씨와 옥소리씨가 옥씨의 간통 혐의
대질 심문을 위해 경찰서에서 어색한
만남.

○~8일 경기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텔런트 박철이 부인인 옥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경찰이 이날
박씨와 옥씨를 불러 대질 심문을 벌였지만, 옥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
어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

○경찰은 앞서 옥씨가 스스로 연
인관계였다고 밝힌 성악인 정모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정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 했다고.

○박철은 지난달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부인 옥씨를 상대로 이훈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
며, 같은달 22일에는 간통혐의로 일
산경찰서에 고소.

/연합뉴스

상습 강간범 징역 12년

광주지법 중형 선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 강신중 부장판사는 8일 절도와 강간·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절도와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으로 두 차례나 같은 범

경찰관 콧수염 징계사유 안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콧수염을 길렸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를 당한 경찰관 박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광주지 동구 학동 모 원룸에서 20대 여성을 2차례 성폭행하고 현금 등을 훔쳤으며 올 7월에도 광주시 남구 사동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55
"마스트리스" 국민보건 팜파인
혈전, 혈관의 적!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스트리스

